

## “혁신계 안에서도 박정희가 반미적이고 청렴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대담 : 김 순 천



◀ **김순천** 4·19에서 5·16 기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그 사이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기가 더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 **전창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날지 걱정이 돼요. 역사적으로 매우 격동적인 시기였죠.

◀ **김순천** 4·19가 일어나던 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데?

◀ **전창일** 서른 둘이었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영건

김순천 \_ 자유기고가, timeksc@hanmail.net

설회사 직원이었죠.

◀ **김순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 **전창일** 4·19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는 3·15부정선거였지만 그것은 이미 단독정부 세울 때부터 예정된 문제였어요. 이승만이 태평양전쟁 중 OSS(CIA의 전신)에 취직되어 일했거든. 말하자면 미국의 고급관리였지요. 또 맥아더가 보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남북을 거쳐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에서조차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읍에서 이승만이 1946년 6월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른바 정읍발언인데 모두 발각 뒤집혀 가지고 좌익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호형호제하던 김구 선생마저도 그 후 이승만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야. 이승만이 차지한 것은 한민당인데 한민당은 친일관료와 지주계급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과 친일관료 외에는 지지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헌의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그 당시에는 간선제로 당선될 수 없게 되자 권력을 유지하려고 청년단체 ‘망벌떼’를 시켜 국회의원들을 감금시키고 무리하게 개헌을 해 가지고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직선제라는 것이 전쟁 중에 말이 선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뭉치투표하고 별 장난을 다 친 거죠. 3·15부정선거는 그 연장선상에 불과했어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정치판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19항쟁 과정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와도 함께 하고, 시위대를 지지해 주고, 여자들은 치마에 돌을 싸서 시위대에 갖다 주고 그랬던 거지요.

## 매가나기 미 대사가 경무대에 들어가서 이승만 보고 하야하라고 그랬어요

◀ **김순천** 다른 세력들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특히 미국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 **전창일** 민심이 이탈되고 의회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니까 미국이 이승만의 정치는 한계에 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국군사동맹을 중요시 여겼어요.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병참기지화 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비공개리에 참전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조선에 와서 경찰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첩보요원으로 다시 와서 일을 했어요. 나도 일본 사람한테 직접 심문을 받아 봤어요.

◀ **김순천** 해방 이후에 일본 형사들이 다시 와서 일했던 말인가요?

◀ **전창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는 일본 경찰이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정 시절 일본 경찰을 다시 채용한 거지. 전쟁 중에는 후방에 있는 일반시민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일을 시켰어요. 소위 '지계부대' 라고 그러는데 탄약, 식량을 고지 위까지 지고 날랐어요. 그 위에까지는 차가 못 올라가는데 고지 위에 있는 군인들은 먹고 싸워야 하니까. 나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철원 근처 한국 군대에 끌려갔는데 마침 그

부대 장교로 있는 중학 후배를 만났어요. 그 후배 도움으로 풀려나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차편을 이용하려고 인접 미군부대로 갔어요. 미군들에게 서울로 가고 싶으니 차 좀 빌려 달라고 영어로 말을 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서 직접 글로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사용하니까 나를 고도로 훈련된 간첩으로 의심을 한 거야. 그래서 정보처에 넘겨 버렸어요.

그게 미군 제1기갑사단인데 나를 서울까지 데려와서 이태원 국민학교에 있던 사단본부 정보처에 가됐어요. 저녁이면 불려나가서 취조를 받는 데, 취조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 사람들이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일본 형사 중 한 사람이 일제시대 때 군수를 한 우리 집안사람을 안 거야. 내가 잡혀온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군수 집안사람인 걸로 봐서 공산당원이 아닌 것 같다.”해서 풀려났어요. 그 이전에도 군대에 징발되어 육군 제1훈련소에 간 적이 있는데,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야. 배는 미국 군함인데 LST라 그러더라고. 책임자만 미군이고 실제 참전하고 병참수송활동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던 게지.

◀ **김순천** 미군들이 일본 형사들과 함께 일한 것을 직접 보신 거네요.

◀ **전창일** 그렇지요. 미국으로서는 중국, 소련,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3국 동맹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이승만 정권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필수인데, 이승만 정권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36년 식민 통치하고 수탈한 모든 물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엄청났지. 일본 기시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일본 국력이 피폐화되어 도저히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 하여 낮추라고 이승만 정권에 압력을 넣었어.

근데 이승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국민 정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때였으니까. 공산당 탄압은 무자비하게 하지만 소위 민주방식에 의한 통치를 한다고 흉내는 내니까 그런 문제는 국회 동의 없이 밀고나갈 힘도 없었거니와 그런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정치를 하는데 이승만 정권으로는 한계다, 차제에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데모가 거세지니까 매가나기 그 당시 미국 대사가 이승만에게 하야를 종용한 거지요. 경무대(지금의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이승만보고 하야하라고 그랬어요.

● **김순천**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 계기가 된 교수시위도 미 대사에게 하야의 확답을 받은 후에 조직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 **전창일** 그때 교수협의회 회장이 내가 알기로는 조윤제 교수라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원장이었거든. 4·19 이후 통일운동 과정에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다 돌아가셔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개연성은 있어요. 부정할 이야기만은 아니야.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은 이승만의 새끼들이야. 한민당이 쪼개져 나온 게 민주당이거든. 이 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전리품을 나눠 먹느라고 갈등이 생기면서 또 쪼개져 신민당으로 분리가 돼요. 여기에 윤보선 씨가 소속되어 있었어요. 민주당 조병옥, 장면 등 친일 세력들. 이 과정에서 허정 과도정부가 서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선거내각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렇게 7·29총선을 치르게 되죠.

## 혁신세력들이 사회대중당으로 결합하여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게 돼요

● **김순천** 4·19 이후 그동안 억압되어 있었던 혁신계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변화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동향은 어땠어요?

● **전창일** 사회주의 진영이라 하지 않고 왜 혁신계라 했냐면 다 그것이 역사적인 연유가 있어요.(침묵)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도 다 역사적 산물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빼 놓고 혁신계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북한에 사회주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따르다 그러면 너, 북한 계열이구나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실 사회주의라는 것도 광의의 개념이야. 무정부주의에서부터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의 웨비안주의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그러면 구차한 변명이 필요했어요. 나는 친북이 아닌 반북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사회주의 그러면 곤욕을 치르니까 ‘혁신계’로 이름 붙인 거지요.

4·19 이후 혁신세력들은 그 이전에 탄압을 많이 받아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잡느라고 우왕좌왕 하고 있었어요. 이런 혁신세력들의 난맥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초부터 이해를 해야 해요. 코민테른에 따르면 한 나라에 전위정당은 하나여야지 두 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국일당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조선 노동당이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이 있는데 또 새롭게 사로당(사회노동당)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조선이 민주기지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쳐 사로당 당원들이 상층부를 제외하고 전부 남로당에 합류했어요. 남로당이 명실공히 전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지. 미국은 세가 확대되는 남로당에 두려움을 느껴 탄압을 가하게 되고, 사로당이 해체되면서 몽양 여운

형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47년 근로인민당을 만드는데 몽양 선생이 미국과 이승만계 테러단(한지근)에게 암살당하면서 근로인민당은 당수 없는 당이 되어 제 활동을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 유일조직으로 남로당이 남았는데 온갖 탄압 속에 투쟁으로 맞서다가 6·25전쟁이 나자, 설 땅이 없어져 버린 거지. 보도연맹 등으로 좌익세력들이 학살당하면서 남로당은 궤멸되었어요.

4·19 이전에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있었어요. 죽산 선생은 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 혁명가로 감옥에서 전향하지 않고 버틴 건실한 사람인데, 박헌영 씨와 관계가 좋지 않아 공산당에서 이탈하게 되지.

그러다 이승만 세력에 포섭되어 단정수립에 참여하게 되어 초대 농림부장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국회부의장도 지내는데 사람들이 이승만의 북진무력통일을 감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를 하면 끌어다 감옥에 가둬 놓든지 죽이든지 하니까. 하지만 죽산 선생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반대한다,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한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인기를 얻어서 3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데 “득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는 말이 나왔어. 실제로는 죽산이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쪽에서는 살려주면 안 된다, 다음은 결정적으로 조봉암에게 정권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조봉암 선생에게 간첩죄를 씌워서 죽인 거야. 무고하게 ‘법사’를 시킨 거지요. 인혁당 사건은 그것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사형케이스에 들어갔는데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구명운동을 벌여서 빼줬어요.

● **김순천** 4·19 이후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진 공간에서 대부분의 혁신세력들이 7·29총선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 **전창일** 예. 대부분의 혁신세력이 4·19 이후 7·29총선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승만 시절에는 선거에 한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정을 반대해서 출마도 안 하고, 선거를 보이콧 했거든요. 그러니 기존조직들은 다 씨클 수준이고 정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혁신세력들이 개별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급조된 것이 ‘사회대중당’이었어요.

여기에 참여한 정파를 보면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할 게요, 중요한 것 같아서. 남로당, 민련계(민족자주 김규식계), 근로인민계(여운형, 장근상), 민주독립당계(박기출, 임갑수), 민주 한독당(김기철), 신화당(문용체), 건민회(김성숙, 배성룡), 천도교 보국당(신숙), 한독당(김구, 신창균, 조규택), 신한민주당(안재홍, 조규희, 박용희, 김경택), 독립노동당(정암, 유림) 등이예요. 유림 선생은 아나키스트야. 유림 선생의 아들이 유원식인데 일제 때 일본 헌병 노릇도 했고 또 5·16쿠데타에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유림 선생이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호적에서 떼어내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유사회당(조봉암, 강진국 계열로 나중에 진보당이 됨), 호헌동지회(이승만 단독국회 만들어질 때 참여. 윤길중, 서상일, 신도성, 고정훈) 등의 이 잡다한 세력들이 사회대중당 깃발 아래 모인 거야.

● **김순천** 사회 대중당의 발기인으로는 박기출, 최근우 씨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외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요?

● **전창일** 60년 5월 12일 당시 가칭 사회대중당 창당 발기인들을 보면 최근우(근민당), 김달호(진보당), 김성숙(근민당), 류한중(근민당), 이동화(민혁당), 이훈구(민족주의 민주사회당), 전진한(한국사회당), 박기출(진보



당, 서상일(민혁명당), 윤길준(진보당), 윤우현(부산 혁신세력) 등이었어요. 거의 모든 정파가 참여했는데 장건상을 대표로 하는 ‘혁신연맹’ 만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장건상은 몽양의 오른팔이었고 단정단선에 끝까지 거부한 사람인데 사회대중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독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어서 그 거부감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지요. 전진한은 초대 대한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폭력으로 때려잡은 사람이었어요. 이승만의 절대 지지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장건상은 사회대중당이 아닌 혁신연맹으로 선거에 참여했지요. 이렇게 여러 정파가 한데 모이니 공천싸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파 간의 이해싸움에서 시작하여 이해싸움으로 끝나버렸지(웃음).

하지만 사회주의가 원래 윤리적으로 이타주의(altruism)인데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혁신세력들이 뿌리까지 억압을 받으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씨클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죠. 국회 선거구가 2백 몇 개 되는데 반 넘은 백 몇 개 지구에서 출마해서 8명만이 당선되었어요. 그것도 상·하원 합쳐서 8명이야. 그때는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총 득표율은 7%였고. 그러니 참패한 거지. 게다가 한 명은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 막 성장하려고 했던 진보세력들이 5·16쿠데타로 박살이 나요

● **김순천** 혁신세력 내부에서 선거 후유증이 심각했겠네요.

● **전창일** 공천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진 데다가 선거에서 패배하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 흩어지면서 크게 네 갈래로 나뉘게 돼요. 최근우를 당수로 하고 있는 사회당과 장건상이 이끄는 혁신연맹, 이동화, 윤길중의 2인 지도체계였던 통일사회당 그리고 김달호가 이끄는 사회대중당. 김달호는 사회대중당을 지키려는 고수파라 할 수 있지. 그리고 문용채가 이끄는 삼민당. 이렇게 재정립되면서 미국이 2·8한미경제원조 상호협정을 체결하자 협정반대 투쟁을 시작했어요. 그 협정은 원조를 주면서 남한에 대한 정치·경제 지배를 법제화한 조약이었어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었지. 5개 당이 연대해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그 당시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반공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국가보안법이 있기는 한데 혁신세력들이 그 법을 잘 알 것 아니에요? 국보법을 피하면서 이제 합법적 조직으로 나오니까 그것으로는 탄압하기 어려워 국보법에 플러스해서 반공법을 만든 거지. 국보법도 이승만처럼 강제로 행사하면 나름대로 무기가 되는데 4·19혁명 정세 속에서는 이승만의 탄압방식이 어렵거든. 새로운 탄압방식을 만들어야 진보세력을 제

어할 수 있겠으니깐 반공법을 만든 거지. 거기에다가 데모가 너무 잦다, 데모를 규제해야 된다면서 데모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대 악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 '이대악법 반대 전국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와 이대악법 반대 공투위, 이 두 개는 진보세력의 전선체였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이 한데 뭉치는 기능적 역할을 하게 돼요. 이 투쟁을 통해 떨어져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게 됐지요.

◀ **김순천** 그러면 선생님도 여기에 참여하신 거예요?

◀ **전창일** 아, 참여했죠.

◀ **김순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회사일 하면서 참여하신 거예요?

◀ **전창일** 그러니까 제가 전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오전 12시까지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오후에 나와 활동했어.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건설회사에서 달러공사를 관장했어. 그게 주로 뭐였냐면 '미군극동사령부 건설본부'라는 데에서 남한의 군사 시설을 한국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데 거기 가서 공사 맡아가지고 오는 일이 내 일이에요. 사무실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미국 사람 만나서 공사 따와서 회사에 주면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그런 일이지.

일제시대에 제가 공업학교를 다녔거든요. 영어를 어느 정도 알고 독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술자로서 영어를 독해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리 많지 않았어요. 공사 맡아줘도 시방서 그게 전부 영문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이 독해를 못해. 영어를 잘 독해하지 못하면 공사하면서 손해를 보거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각 건설회사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어. 회사에서 안 놓치려고 내가 회사 일에는 지장이 없게 하니까 오후에 나가서 사회활동 하겠다, 그래도 '아, 그러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혁신계 사람들 대부분 실업자들 아니요? 그래서 월급 타는 내가 나가서 차도 사주고 그랬어요(웃음). 내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조금 전에 경제협정 반대투위와 이대악법 공투위 말했잖아요. 그곳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기획위원과 섭외부 차장을 맡았어요.

◀ **김순천** 섭외부 차장이요?

◀ **전창일** 말하자면 대외활동을 한 거지요. 앞에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는 통일단체에 대해서 말했지요? 그 민자통의 기간단체라고 볼 수 있으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청년조직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과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이었어요. 4·19 때 만든 대표적인 청년단체예요. 중심 인물이 우홍선, 서도원, 도예중, 이재문 등인데 이 사람들 중에 남민전 사건으로 죽은 이재문 씨 빼고는 모두 인혁당 사건으로 법사를 당한 사람들이예요. 인혁당 때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청년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 민자통을 결성하는데 저는 이 연대조직의 대외 일을 했던 거지요.

또 『민족일보』가 있었는데 그 신문이 혁신세력의 대변지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 실무적인 접촉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민자통이 분해가 돼

요,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자주, 반독재 민주, 평화적 통일이 3대 강령인데 통일사회당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스위스식의 영구중립화를 강령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그것은 미래통일정부의 대외정책으로는 되지만은 현재 남북이 대립과 반목하는 정세 하에서는 이북도 통일의 당사자인데 그쪽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가 통일방안으로 강령에 내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했어요.

남북협상을 통해서 민족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외세간섭 배제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사회당 통일정책을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사회당 대변인이 유병목 중앙대 정치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를 상당히 강조했구요. 지금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이 '우리 민족끼리' 아니에요? 참 원대하게 앞을 내다보면서 주장했던 거지요. 5개 정당 중에 사회당 노선이 제일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민자통의 기간조직이랄 수 있는 두 개의 청년단체가 사회당을 지지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대약법 반대운동이 상당히 대규모로 전선이 형성되거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전부 지부가 형성되고 61년 3월 22일에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전국대회가 열렸어요. 몇 만 명이 모여서. 마치 붉은 악마가 월드컵 축구를 응원할 때처럼 시청 앞을 꽉 메웠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마대를 총동원해서 데모를 막으려 했는데…….

◀ **김순천** (웃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데모를 막았어요?

◀ **전창일** 지금은 전경들이 막지만 그 당시에는 기마대를 내세웠어요. 데모대원들이 말 앞에 가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마대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햇불을 들었는데 그 햇불을 말에 갔다대면 말들이 다 도망을 가(웃음). 그러니까 정부 저지선이 완전히 뚫린 거지. 말들이 다 도망가고 기마병들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참 희극이었지. 광화문 네거리, 종로 거리, 그 거리를 맘대로 돌아다녔어. 서울시 한복판을 완전히 장악한 거지.

그리고 종로 거리를 행진하여 동대문에 머무르다가 을지로 통을 거쳐 다시 시청 앞에 모여서 해산했거든. 근데 그날 저녁 일부 사람들이 혜화동의 총리 관저를 습격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

이런 전국 연대투쟁을 통해 혁신계 사람들은 내부 정파들의 통합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어요. 5월 초순에는 그 통합이 거의 무르익어 갔어요. 통일사회당을 제외한 3당이 합치는 거지요.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이 합당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청년단체도 통민청, 민민청이 합치기로 하고. 청년단체는 5월 하순에, 정당은 6월 초에 합당한다는 스케줄이 있었어. 근데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다 깨진 거지.

◀ **김순천** 5·16쿠데타로 인해 막 성장하려고 한 진보세력들이 다 박살이 난 거네요?

◀ **전창일** 그렇죠. 진보세력들이 제자리를 찾고 말하자면 자기 위치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이었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민족일보』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혁신계 대변지 역할을 해 주었어요. 그 사장이 조용수 씨였어요. 그러다가 5·16쿠데타가 일어나 전부 끌려가게 된 거죠. 쿠데타니까 '혁명재판소' 라는 폭력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법도 없으니까 소급법인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 혁신계를 단죄한 거죠. 박정희 정권은 혁신세력들을 '간접침략 세력' 이라고 이름 붙여서 악랄한 탄압을 자행해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은 군사재판에

서 사형을 당하고 사회당 조직부장 최백근 씨도 ‘법사’를 당해요. 최근우 씨는 고문을 혹독히 당해 재판도 못 받고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옥사를 했어요. 잡혀온 사람들에게 최고 7년 간의 옥고를 치르게 했어요. 그때에 구속된 인원들이 천여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수형생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더 심층적인 상호 검증을 한 거예요. 함께 옥중생활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여태껏 잘 몰랐던 사람들의 여러 측면도 알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학적인 이론이나 자주적인 민족의식, 역사에 관한 생각들을 알게 되고 출옥 후에는 성향이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서클을 만들게 돼요. 나 같은 경우는 피신을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 **김순천** 선생님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전창일** 쿠데타 일어날 것은 몰랐지만 일어난 직후에 이것이 쿠데타구나, 하고 알았죠. 사람들이 저를 붙잡으려다녔고 아슬아슬하게 모면해서 붙잡히지 않은 장면도 많았어. 한 1년 가까이 밖에도 못 나가고 숨어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수배자 명단에 김창일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글을 안 쓰고 전부 한문으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신문에 인쇄 유인물이 나가도 한문으로 쓰요. 그런데 전씨가 점 두개가 더 찍혀 김씨가 돼 버린 거예요. 김창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검문을 피한 적도 몇 번

있어요(웃음). 내가 감옥은 안 갔지만 직업이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친구들과 면회 가고 차입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왕래하게 되고 집안에 길흉사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면서 일종의 정치성을 띤 서클 같은 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공안조직 사건으로 둔갑되기도 했어요. 인혁당, 통혁당, 제2차 인혁당, 남민전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말이에요.

### 이승만도 80억 불이었는데 박정희와 김종필이가 파격적으로 3억 불에 한일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 **김순천** 5·16쿠데타와 관련하여 그 전후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 **전창일** 내가 군대하고는 관련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박의 친구 김종길이라는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 분이 부산동아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김종길 변호사도 사회대중당 공천을 받아서 입후보했던 사람이예요. 낙선되었는데 진보적인 사람이지요. 대구사범을 박정희랑 같이 나왔어요. 동기동창이에요. 사범학교 나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사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국민학교에 가서 일하면서 학교 때 학자금 안내고 다닌 빚을 갚는 거죠. 이 분도 대구사범 마치고 유학을 간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그랬어요.

5·16 후에 박정희가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이 한일협정이예요. 이 한일협정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김종필이를 내세워 무리하게 한일협정을 해 가지고 국교를 정상화 시켜요. 이승만은 80억 불 인가를 요구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30억 불에 타협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와 김종필이 나서서 파격적으로 3억 불에 한일협정을 맺어 버린 거



예요. 온 나라에서 한일협정 굴욕외교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과정에서 3·24와 6·3운동이 일어나요. 대학가에서 데모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이 3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3·24사건이라고 부르죠. 박 정권이 위수령이라는 것을 내세워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못 막으니까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참가하게 되는 대대적인 학생·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보세력들은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져요.

6·3사태 이후에 나는 자강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장 정범석을 회장으로, 부회장은 김종길 변호사, 고문 서민호 국회의원. 서민호 의원은 5·16 군사정권 하에서 진보적인 민중당을 만들다 탄압받았는데, 측면에서 학생운동을 지원해 주었어요. 자강학회 회원 대부분이 언론계, 혁신계, 현직 교수들이었어요. 대부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위협당하고 해고당하고 그랬죠. 정범석 학장의 경우는 대학에서 해고 됐어요. 해직교수 제 1호가 된 거지요. 이렇게 아는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 때 김종길 씨가 내 변호사로 나왔어요.

◀ **김순천**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군요?

◀ **전창일** 김종길 변호사가 박정희하고 죽마고우인데 일본 사관학교 출신이고 박이 장교가 되기 위해 군대 갔고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김종길 변호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더 구체적이야. 박이 사범학교 졸업하고 봉화국민학교에 부임되어 있었는데 그때의 대구사범이라 하게 되면 현 경기중학 - 그 당시는 경기도보인데 - 못지않은 명문 교육기관이야. 경성사범, 대구사범, 평양사범, 함흥사범 등 굵직한 도청 소재지의 큰 도시에 하나씩은 있었거든. 학자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강제로 사범학교에 보냈어요. 전쟁 나면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강제로 공업학교에 보냈어요. 기술자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박이 봉화에서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총독부에서 조선청년도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징병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원제를 실시했어요. 거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겨우 소학교를 나올까 말까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대부분 안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경방대라는 어용청년단체가 있었는데, 그 경방대 간부들이 한 개 면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지원병으로 내보내고 그랬어, 영웅대접 해 가지고.

근데 대구사범이라는 명문을 졸업하고 국민학교 선생인 박정희가 지원병으로 나갔다 하니 깜짝 놀라버린 거지. 일본 사관학교나 항공 사관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원병으로 갔다니 다들 이해가 안 간 거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원병으로 가게 된 것은 무슨 곡절이 있었나 보더라구요.

◀ **김순천** 그래요? 무슨 곡절인데요? 불미스런 일과 관련이 된 건가요?

◀ **전창일** 글썄 자세한 것은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동료 선생들이 살아있어서 증언하면 알게 되겠지. 그래 가지고 조선 청년들이 처음 지원병이 되는 라남사단에 들어간 거라고 김종길이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질병으로 간 거지. 군대에서도 놀랄 일이지. 전부 제 이름자나 겨우 쓰는 사람들을 끌어온 건데 대구사범 출신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놀랄 거 아니예요? 그래서

특대우를 하게 된 거지. 거기서 만주사관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주사관학교는 일본군들의 괴뢰군 사관학교야. 만주사관 학교는 조선애들, 중국애들 군사훈련 시키는 곳이야. 만주제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 황제를 세워놓은 거지. 만주사관학교가 3년제인데 3학년 올라갈 때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일본 사관학교에 가서 6개월 간 훈련 받고 온대요. 박정희도 거기에 뽑혀서 갔나 봐요.

김종길 씨 이야기에 의하면 종길 씨가 일본에 유학해서 자취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면 일본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박이 찾아왔대. 술 마시자고 하면서 군복 입고 일요일마다 찾아와서 각별하게 지내곤 했다고 하더라고. 종길 씨가 부산 동아대학 교수로 있을 때 박정희가 또 부산에 와서 군수사령관으로 지냈나 봐요. 그렇게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마다 찾아와서 “야, 종길아 나와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군수사령관이니까 풍족하게 술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박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대구사범학교 동창회에 거금을 냈는데 종길 씨에게 맡으라고 주었대요. 종길 씨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변호사지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5·16 후에 박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루는 박이 종길 씨를 청와대로 부르더라고. 자강학회 때문에. 거기서 비서들이 나와 가지고 안내해서 들어갔거든. 말하자면 박이 연행해 간 거지. 들어가자마자 박이 “야, 종길아, 니가 나를 반대한다면서?” 대변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일협정을 반대했지, 내가 왜 너를 반대하냐?” 그랬대(웃음). 종길 씨가 박과 대화하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친구 사이에 안 되겠다.” 하면서 사의표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는 중요한 일이다.” 하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월혁명 후 혁신계에 고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괴상한 사람이야. 미 극동사령부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본의 아오야마 대학 영문과를 나왔어. 자유당 치하에서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에서 논설위원도 하고 칼럼도 쓰고 그랬죠. 그 사람이 해방을 만주에서 맞았어.

이 사람이 평양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해방 공간 그때에 주둔 소련군 통역을 했어. 그때 소련 대표가 스티코프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대장의 서류가방을 훔쳐서 월남을 한 거야. 남한에 와서 미 극동사령부 정보처에서 일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박정희랑 같이 일했대요. 김종필도 미 극동사령부 정보처에서 장교신분으로 일했고요. 고정훈이 대단한 정보를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육군 중령 계급장도 달고 나중에 전두환 시대에는 국보위에서도 일했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또 이동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균관대학 교수를 했는데 원래 평양에서 김일성대학 정치학 교수였어요. 이동화가 평양에 있을 때 국군들이 들어왔는데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백선엽 장군의 아버지와 이동화 아버지가 친한 친구사이였대요. 백선엽 씨가 평양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 그의 아버지가 “야, 김일성대학에 내 친구 아들 이동화가 있는데 절대 죽이지 말고 보호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백선엽씨가 이동화 생포 명령을 내렸어요. 이동화는 국군한테 잡혀서 모시고 내려온 거야. 김일성대학 정치학 교수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화 교수도 미 극동사령부에서 일했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혁신계 사회대중당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통일사회당에 몸담게 되고요. 대부분 혁신계 사람들은 굳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내가 정보처 출신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민자통에서 민족자주통일이나 반미적인 플랜카드를 내걸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러면 큰일 나.” 그러면서 플랜카드를 치우라고 경고도 하고 그랬어. 우리가 왜 그러냐, 하고 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쿠데타 나, 군대 쿠데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대의 생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윤보선 선생이 5·16쿠데타를 지지했는데 장준하 씨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김순천** 아, 장준하 씨가 5·16쿠데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 **전창일**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은 한때 중국에서 OSS 감독 지휘 하에 있던 광복군의 장교였거든요. 『사상계』를 발행할 때 사용한 종이가 참 좋은데 그것도 전부 미국에서 공급해 준 거예요.

❏ **김순천** 『사상계』에 사용된 종이를 전부 미국이 제공해 준 거란 말씀인가요?

❏ **전창일** 그래요. 그렇지만 이승만이 OSS에서 일한 것하고 장준하 선생이 OSS의 지휘를 받은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장준하 씨는 일본 동경에서 신학교 대학생으로

있을 때 학병으로 끌려가 일본 군대에 있다가 목숨을 건 탈영을 해 가지고 중경임시정부 김구 선생을 찾아가 광복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당시 김구 선생 산하의 광복군들은 모두 미국 OSS 산하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령부에서 조선 본토 상륙 이전에 광복군을 먼저 투입해서 게릴라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군이라는 게 OSS 작전 지휘 산하 조직이에요. 이걸 역사적 사실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미군의 한국군 작전지휘권도 그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김구 선생도 그 통제 하에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중국의 장개석 정부도 미국 작전 통제 하에 있었고.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훈련을 OSS 미군들이 맡았던 거예요. 광복군 산하의 이청천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민족청년단 단장을 했잖아요? 민족청년단의 자금, 유니폼 등은 다 미군정에서 지원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단독정부 시절에 이범석 장군도 국무총리하고 그랬어요.

윤보선 씨는 민주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때 신민당으로 오셨어요. 장면 하고는 정적관계예요. 민주당 정권 때 명예상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장관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 처지에 있었으니까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한다고 하니가 해라, 해라 한 거지. 유원식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유림 선생 아들이 있었어요. 일본군 헌병 출신이거든요. 중장인가 소장인가 했는데 박정희하고 작당해서 쿠데타 하는데 독립운동가 유림의 아들이라 해서 추앙을 받은 거예요. 일본 헌병 경력은 감추고 있었으니까. 윤보선 씨는 유원식이 찾아오면 독립운동가 아들이라고 잘해 주고 반겨주었어요.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후보가 난립했는데 친일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 뽑자 해서 된 거예요. 다들 한민당 출신이어서 후보들이 다 친일 행적이 걸렸거든요. 윤보선 씨만 걸리지 않은 거예요. 친일하지 않았다는 자기 긍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자식이라고 더욱 신뢰를 해버린 거죠. 유원식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저 쿠데타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장면 정권 넘어뜨리겠다고 하니가 넘어뜨려라 한 거지(웃음).

거기에다가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은밀히 쿠데타를 지원했어. 방조했던 거지. 그런 얽히고 설킨 과정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를 선동하는 입장에 섰고 장준하 씨도 그런 관계에서는 윤보선 씨와 비슷한 정서를 가질 수 있었어요. 미국의 CIA국장이 그만두면서 했던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공개된 이야기예요. “내가 해외 정치공작에서 성공하고 만족스러운 게 한국의 5·16군사쿠데타이다.” 이런 걸 보면 미국 CIA가 은밀히 박 정권을 지지해 주었던 거예요. 그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박이 쿠데타하고 나서 한 것은 민족자주진영 박멸과 한일협정 체결해서 한·미·일 3국 동맹을 결속시키는 일 두 가지였어요. 이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긴밀히 맞아 떨어지는 거였지요.

###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의 발언을 낼 수 있는 여론장치가 없었어요

◀ **김순천** 그때 지식인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 **전창일** 지식인들은 민주당이 4·19 때 학생들의 피로 정권을 잡아서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압하며 마구잡이로 투옥하는 판에 반공법을 만들어 통제하려 하니 까 체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에 방관하는 입장이었죠.

◀ **김순천** 아, 지식인들이 5·16군사쿠데타에 대해 방관하

는 입장이었어요?

◀ **전창일** 을 것이 왔구나, 그렇게 보고 있었지. 그 당시에 박정희의 과거행적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 형이 남로당을 했고 또 박이 군대 내에서 직접 남로당 조직에 관여해서 무기징역까지 받았고 등등. 만주사관학교 출신들의 도움으로 무기징역 면하고 6·25가 나자, 군대에 복귀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반미적이다 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고문관에 대해서 맹종하지 않았고 사병에 대해 착취하지 않은 청렴한 장군이라고 선전되어 있었어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 김형욱의 소위 항명운동이란 게 있었어. 중장 이상은 다 퇴역해야 한다, 군권은 소장들이 진급해서 장악해야 한다는 항명운동이 있어 가지고 군대에서 다 쫓겨났거든. 민주당 정권 하에서. 그런 모습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박이 청렴하다고 받아들여진 거지. 5·16쿠데타의 전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 **김순천** 박정희가 청렴하고 반미적일 것 같다는 이미지를 일부러 유포시킨 건가요?

◀ **전창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은 그렇게 됐어요. 일부 지식인들은 부패한 군부를 박이 쿠데타를 했으니 정화하겠지,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자주권을 행사하는 건 아닐까,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내면을 알고 보면 박의 형이 10월 인민폭동에서 희생됐거든. 그 영향을 받아서 박이 지하조직의 멤버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발각이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직 멤버 명단을 적에게 다 넘겨 줬버린 거야. 실상이 이런데 ‘장면 정권’ 보다는 낫겠지 하는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혁신계 안에서도 그런 환상을 갖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 **김순천** 혁신계 안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말인가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던 말인가요?

◀ **전창일** 하도 장면 정권이 못하니까.

◀ **김순천** 지식인들이 이 정도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 대중들도 쿠데타에 대해서 심정적 지지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 **전창일** 지지는 아니고 방관 상태라고 봐야 정확하지. 방관 안 할 수도 없어. 군인들이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에 게 - 대담자 주) 동조하면 그냥 데려다가 가둬버리거나 죽여 버리니까, 권총 들이대면서. 살기 위해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위협적 상황에서 방관한 거지. 장면 정권이 하도 못하니까 위협적인 상황에서 (박 정권에 대해 - 대담자 주) 기대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무기력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지요.

◀ **김순천**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건가요?

◀ **전창일** 그렇죠. 대안을 내게 되면 다 죽죠. 유일한 대안이란 게 군인들이 지식인들 연행해 다가 “우리가 정치를 잘 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다, 너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다오.”하고 협박을 해서 협조를 하게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농업문제, 무역, 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논문 제출하면 돈 주고 어떤 경우는 강제로 명령하

고. 지식인들이 본의 아닌 협조를 하게 되는 거지.

또 그러다 보면 의식적인 협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장관 자리에 앉혀주고 중앙관서 자리에 앉혀주고, 행정관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신문 기자들은 집 사주면서 언론 장악하는 거죠. 그때는 여론이란 게 없었어요, 여론이. 대학 교수여도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대표적으로 정범석 교수가 있는데 쫓겨나서는 호구지책으로 건국대학교 도서관장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중에는 박 정권과 타협을 했어요.

◀ **김순천** 그 당시에는 여론이란 게 없었어요?

◀ **전창일** 없었지요.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발언을 낼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어요.

◀ **김순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 **전창일** 사회단체 결성도 없었고, 여론 조사라는 것도 없었고. 겨우 겨우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데모가 커지면 급격하게 항쟁도 되고 혁명도 되고 그러는 거지요. 하지만 그때는 한일협정 반대운동뿐이었어요. 그렇게 국민들 힘이 세지 않으니까 군부가 윤보선을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정치를 했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정치활동이 허용되었는데 혁신계는 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활동을 한 거지. 나중에 신민당이 좀 세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가 정치권력으로 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그 뒷받침을 미국 정부가 했던 거죠.

● **김순천** 미국이 군사정권을 뒷받침해줬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가 있나요?

● **전창일** 예를 들면 5·16 혁명재판소에 혁명 검찰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검찰부장이 박일만인가 인데 이 사람이 혁신계 중요인물인 이명화 씨의 외조카야. 이명화 씨의 누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에서 활동하다가 쿠데타에 가담하여 검찰부장이 된 거야. 검찰부장이 뭐냐면 혁신계 때려잡는 수장이거든. 그래서 자신의 외삼촌인 이명화 씨를 잡아넣은 거지. 이명화 씨는 진보당 출신이며 통사당 간부였어요. 그 이명화 씨가 안양교도소에서 징역 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 검찰부장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온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박정희 정권 때 검찰 수장 노릇하던 사람이 안양교도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는 자기 외삼촌한테 큰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네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5·16 후에 알래스카 토벌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16쿠데타에 가담한 이북 출신 군인들을 싹쓸이 한 사건인데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이북 출신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몬 거죠. 이 사람이 자신들은 미국놈들에게 속았다고 한 거예요. 모두들 신기하고 놀라워했어요. 미국 CIA에 하우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사에도 나오는데 5·16군사쿠데타의 배후 조종자예요. 하우스맨이 이 검찰부장을 불러서 “박정희, 김종필을 믿을 수 없다, 특히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더 그렇다. 너는 북한에서 월남해 온 사람이니까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믿는다, 너가 박정희, 김종필을 제거하라.” 그런 거예요.

● **김순천** 아, 하우스맨이 직접 불러서 그런 말 했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 **전창일** 응. 이놈들은 미국 놈이 시키니까 오케이하고 자기들이 박정희, 김종필 제거 공작을 하는 거야. 김종필 부인이 박정희 형의 딸이야. 형이 남로당 간부였잖아, 그러니까 김종필 장인이 10월 혁명 때 학살당한 거나 같지. 둘의 관계가 보통으로 친밀한 게 아니었어. 권력 안에서는 박-김 라인 지도체계라고 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수권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내부 반발이 크지 않겠어? 그런데다가 박정희란 사람은 지방색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어서 경상도 사람에게만 잘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상도 사람만 기용한다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우스맨이 반기를 들어라 하니깐,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왜 지금도 우리 정계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우스맨이 자기들을 지지한다 믿으면서 결속을 한 거야. 그리고 하우스맨이 “누구 포섭하고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메모를 써서 매일 나에게 보고하라.” 그런 거예요. 하우스맨이 그렇게 말하니 이 사람들이 매일 보고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하우스맨에게 준 일일보고서를 다 쥐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꺼번에 일망타진 돼서 감옥에 들어온 거지요.

● **김순천** 박 정권을 안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 세력을 제거한 거예요?

● **전창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박-김 지도체계 확립에 협조 안 하는 5·

16 간부 세력들을 제거한 거죠. 그게 알래스카 토벌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다 감옥에 들어와 있었어요. 반혁명 분자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무기, 15년 이렇게 내렸는데 2~3년 있다가 다 내놓았어. 내놓으면서 국유지 불하해 주고 생활 안정시켜 주고 그런 거지.

◀ **김순천**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어요?

◀ **전창일** 이 이야기는 감옥 살았던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

◀ **김순천** 그러면 미국이 5·16에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개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 **전창일** 아주 고도의 뭐랄까요, 고도의 은폐 속에서 기술적으로 개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CIA 국장이 은퇴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라고 자랑했잖아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쿠데타 나면서 박정희가 이후락이를 장면 국무총리의 안보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서대문형무소에 가둬 놓은 거야. 이후락이가 미국 CIA 하고 연결된 건지도 모르고 박이 잡아넣어서 처단하려고 한 거지. 그래 미국에서 손을 써 가지고 석방시켜서 박정희 비서실장으로 갖다놓았잖아. 그거 박정희가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지. 미국에서 갖다 놓은 거지. 이후락은 한국의 정보장교로 있으면서 미국 CIA의 정식교육을 받은 장교예요. 미국이 장면 총리의 안보비서관으로 파견한 거나 같지. 후암동에 일제시대 일본 놈들의 양조장 건물이 있었거든. 그곳을 대한민국 국방부 건물로 쓴 거야. 거기서 국무총리 안보비

서관인 이후락이가 국방부 내에 특실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냐면 ‘한국중앙정보부’를 조직했어요. 5·16 후에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이 되는데 김종필은 이후락이 했던 작업을 받아서 한 거예요.

마치 박정희가 국가재건위원회 의장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가보안법이 있는데도 혁신세력을 때려잡으려고 반공법을 선포했듯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민주당에서 만든 거지. 그것을 전두환 시대에 와 가지고 두 개를 합하여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한 거예요.

### 장준하 씨는 5·16쿠데타를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 **김순천** 앞에서 장준하 씨가 5·16쿠데타를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행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전창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준하 씨는 김구 선생하고 인연을 맺은 다음에는 그의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이예요. 김구 선생과 이승만은 단짝이고 견해를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한다니까 김구 선생이 반대하면서 둘이 헤어졌는데, 그때 장준하 씨는 김구 선생에게서 떨어져 나와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장준하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윤보선 씨가 5·16 이후에 대통령 직을 사임하라는데 박정희가 군대로 돌아간다고 해 놓고서는 대통령 출마하잖아요? 윤보선 씨가 그때 야당 후보로 두 번 나왔다가 떨어지고 박정희가 당선돼요. 근데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후보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윤보선 씨가 나오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윤보선 씨가 장준하 씨와 손잡고 ‘국민의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야당이 있었는데 신민당이야. 신민당 후보로는 김대중

씨가 나오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야당 후보가 둘이 나와 표가 분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국민의 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윤보선 씨가 정치해 보니까 참신한 것은 혁신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혁신계를 국민의 당으로 포섭하려고 애를 썼어. 박기출, 김달호 씨 등. 김달호 씨는 진보당 간부고 4·19 이후 사회대중당에서 일인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회 의정단상에서 연설해서 처음으로 평화통일을 의사록에 올려놓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북진통일이 국시야. 그런 상황에서 조봉암 선생하고 어깨를 같이하면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양심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야.

윤보선 씨로부터 신당 참여 권유를 받았을 때는 김달호 씨가 7년 징역을 살고 나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때였어요.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고. 마음이 많이 답답해서 나하고 자주 전화해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나는 항상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녁때는 시간이 나죠.

그때 윤보선 씨가 김달호 씨를 국민의 당에 포섭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김달호 씨가 윤보선 씨 만나는 자리에 꼭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요. 같이 가서 두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와서 서로 의논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젊은 사람 취급받았을 텐데 함께 있으면 윤보선 씨가 젊은 사람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해요. 안국동 윤보선 씨 집에 가서 가끔 만났어요. 윤보선 씨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김달호 씨랑 협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국민의 당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박정희

를 넘긴다.

만약 이런 확답을 받으면 국민의 당에 사회개혁 세력으로 참여하고, 확답을 얻지 못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윤보선 씨에게 확답을 요구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 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공천을 안 한다든가, 신민당하고 연합 공천한다는 것을 결정하자." 그 말은 자칫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만약 당에 들어갔다가 대통령 후보를 내놓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거죠. 신중히 생각하다가 결국 안 들어갔어요. 부산에 있는 박기출 씨가 대신 들어갔어요.

그 일 때문에 장준하 씨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랬어요. 장준하 씨하고 윤보선 씨는 김달호 씨를 포섭하려고 할 때, 인혁당 사건으로 죽은 이수병이 하고 함께 가기도 했어요. 장준하 씨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도 있어요. 제기동에 살 때. 마당에 고압전주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 간부회의에서 공천권을 윤보선 씨에게 일임하니까 박기출 씨를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하 씨가 당에서 자기는 2인자인데 윤보선 씨가 안 나오면 자기가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장준하 씨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여덟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75년 4월 9일을 국제법률가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사형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유족들과 위로하는 외국인 선교사(사진 제공 /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가 그 당에 갔을 때는 대통령 후보로 자기가 나오려고 손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박기출 씨를 지명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장준하 씨가 당에 안 나왔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장준하 씨 가까이에 있었던 이OO에게 들었어요. 저랑 함께 전주와 대구교도소에서 감방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이 극비사항이었어요.

박기출 씨가 국민의 당 후보로 결정되니까 큰일이 난 거지요. 박기출 씨가 나오면 신민당 김대중 후보하고 야당 후보가 둘이나 되는데, 그러면 표를 상당히 깎아먹고 박정희가 당선된다는 게 너무 명약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박기출 씨는 알잖아요. 그는 이승만 시대에 진보당 출신 조봉암 씨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었어요. 혁신계 지도자의 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박기출 씨 후보 사퇴농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사퇴했어요. 그 과정에서 주동한 사람 7~8명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국민의 당은 남의 당인데 왜 간섭하냐.” 는 등 온갖 협박을 받으면서.

### 죽은 내 동지들과 마누라 생각하면 아쉽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 **김순천** 사퇴했는데도 박정희에게 진 건가요?

● **전창일** 다 부정선거를 했죠. 우리가 중앙정보부에 갇혀 있는데 관용차는 관 몇 호 이렇게 쓰여 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출퇴근시키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관자를 전부 뜯더니 가짜 번호판을 붙이더라고. 직접 봤어. 그렇게

중앙정보부 차를 유세 동원차로 썼어. 전부 이승만 선거 그대로 답습을 한 거지요. 사실 박정희가 선거 이겨내기 힘들죠. 결국 70년대 말에 민심이 이탈돼 가지고 4·19혁명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거지. 그래서 김재규가 마산의거 일어난 것을 계기로 ‘박통’ 을 썬 죽인 거지.

● **김순천** 선생님도 옥살이 많이 하셨죠. 인혁당 사건에도 연루되시고.

● **전창일** 범민련이랑 다 합치면 15년 정도 돼요. 아내가 연약한 몸으로 옥 바라지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느라 ‘언제 바깥세상을 나갈까 기약 없는 무기수로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남북이 화해해서 왕래도 하고 인혁당 사건도 진실이 밝혀지고 하니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웃음). 죽은 내 동지들과 마누라 생각하면 아쉽기만 하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요즘은 살아가는 데 힘이 나요. ~~사~~

사진 : 황 석 선